

	보도자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배포일자 2022년 4월 6일(수) 총 3매		
담당 부서 사회적경제과	담당자 • 사회적기업팀장 최경선 ☎440-4971 • 담당자 이선민 ☎440-4974		
사진(이미지) 보도시점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본격화
 - 유통채널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증대를 통한 양적·질적 성숙 목표 -
 - 통합플랫폼, 인천이음 36.5+ ... 기능 개선으로 일반 소비자 이용 편의 도모-

인천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본격화한다.

인천광역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숙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
우선,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‘2022년 사회적경제 민·관 협업체계 구축사업’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(5천만 원)와 시비(5천만 원) 등 총 1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‘인천이음 36.5+ (www.eum365.com)’의 기능을 개선하고,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를 지원한다.

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7월 초 시민대상 플랫폼으로 재 오픈 한다. 이로써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도 ‘인천 이음 36.5+’ 를 통해 인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.

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 기획단계부터 플랫폼 홍보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어 변화된 시장수요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한편, 인천시는 사회적경제기업 규모 및 공공구매 실적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. 2021년 말 기준 관내 사회적기업 수는 291개로 2020년(241개)대비 21% 증가했고, 시, 군·구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은 전년(265억 원)대비 34% 증가한 355억 원을 기록했다. 이는 당초 목표치인 270억 원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.

시는 올해 시, 군·구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3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이를 위해, 인천시는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선구매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.

또한, 홈플러스, 우체국 등 신규 유통채널에 진출해 판촉망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가치 소비시장 확대를 중점적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.

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역량 강화 및 사회적가치 소비시장 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, 인천시 사회적경제의 양적·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될 것” 이라면서, “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참여” 를 당부했다.